

보도자료

2010년 6월 9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 과장(☎750-2770)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한지혜 사무관(☎750-2773) han@kcc.go.kr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APPA) 회의 내년 한국에서 유치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5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APPA, 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회의를 내년 6월에 한국으로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PPA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미국, 일본, 마카오 8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협의체로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조 및 협력을 주요 역할로 수행하고 있다.

APPA 회의는 매년 2차례 개최하며 금번 한국 유치 건은 지난 6월 4일 호주 노던테리토리주의 다윈(Darwin)에서 개최된 제33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측의 제의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제29차 APPA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유치는 두 번째이다.

방통위는 APPA 회의에서 “기술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워킹그룹 구성, SNS 등 소셜미디어와 스마트그리드 등 신규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이슈 등에 대한 폭넓게 논의 할 예정이다. APPA 회의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내년 회의 유치가 향후 아·태지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협력 관련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끝.